

서울특별시 보건소 간호원에 대한 보수교육이 3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본회 강당에서 서울시 간호원회 주최로 열렸다. 이번 보수교육은 서울시 13개 보건소 간호원을 대상으로 전기(6, 7일), 후기(8, 9일) 두차례로 나눠 실시되었다. 본지는 이번 보수교육의 연재를 발췌하여 실는다. <편집자 주>

## 專門職業에 대한 態度

박 영 신

<연세대학교육대학원사회학교수>

職業이란? 일을 의미한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여러 意味를 가진다. 일 자체는 역사적 배경으로보나 사회적으로 높이 評價 받지 못하였다고 본다. 그것은 예로부터 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취미정도는 높이 평가 되었으나 業이라는 것은 사회적 존경을 받지 못하고 賤視하였다.

西洋에서도 르네상스 이전에는 自由란 貴族들의 人權이었지 職業을 갖는이의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李朝社會에서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兩班은 일을 賤하게 생각했다. 마지못해서 농사는 지었어도 많은 농토를 가진 地主들은 직접 일을 하지 않았다. 東洋에서는 儒敎經典을 탐독하고 漢文으로 詩를 쓰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손을 써서 技術을 발휘한다는 것은 賤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兩班중에서 農商工業을 하는 것은 賤하게 생각 할 수 밖에 없었다.

朝鮮社會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맡은 통역관, 의사, 출판인쇄 기술을 가진 사람은 끝내 兩班이 될 수 없었고 賤民이 되었다. 그러므로 朝鮮社會에서는 商工業이 발달할 수가 없었다. 職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近代社會에와서 西洋에서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다. 이것을 社會學的으로 말한다면 독일의 사회학자 “Max Weber”는 職業에 대한 의의와 의기를 말한다면 독일어로는 Beruf, 부름을 받다. 영어로는 Colling, Vocatio로 역시 부른다는 뜻이다.

이것은 하느님이 人間에게 해야할 일을 준 것

이며, 勞動에 의미를 갖게된 것이다. 이러한 理念은 르네상스이후부터 변화된 사상입니다. 舊約聖書에 創造에 대한 말씀으로 하느님이 人間을 만들어 놓고 人間에게 말하기를 “森羅萬象을 만들어 놓았으니 너희는 잘 보살피라”라고 明示되어 宗教改革이후 이 句節을 중요시 다스려 基督敎的 의미로는 하느님이 인간을 불러 할 일을 주었음을 뜻하였다 한다.

宗教改革이후 우리의 삶에 어떤 뜻이 있는가를 깊숙하게 파고들었으며,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은, 내 사사로운 명이나 부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神의 뜻, 하느님의 높은 뜻에 의하여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내직업을 賤視할 수 없고, 의미가 있다고 보고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내가 대장장이이다. 대장장이란 직업은 할 수 없어서 된 것이 아니라 마차를 가진 이들에게 마차에 관계되는 도구를 만들어 주는데 의미있는 일이다. 나 이외의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다.

宗教改革이후의 학자의 말을 빌리면, 내가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간호원이 되었다. 간호원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내 사사로운 뜻에서 된 것이 아니고 “보다 높은 뜻에 의하여 神의 뜻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고 賤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자기 직업이란 神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사는 수단으로 이 직업을 준 것이다. 내가 왜 간호원이 되었는가? 내가 왜 大學선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神이 나에게 부여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서둘러 노닥거릴 수 없고 놀기만

할 수 없고, 심각하게 내 직업에 대한 태도에 대하여 엄격하고 호되게 비판하며 사는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충실하게 학문을 전하는가? 연구했는가? 학생을 보살피는가? 내가 大學 선생을 하는 것은 나 이외의 보다 높은 뜻을 가지고 이바지하기 위하여 준 직업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 직업은 내 사사로운 직업이 아니고 이 직업을 통하여 큰 뜻을 펴기 위하여 神이 나로 하여금 이 직업을 준 것이라고 그 태도를 갖는다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내가 간호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보다 높은 뜻을 가지고 간호원이 된 것이다. 따라서 간호원이 된 것은 神으로부터 간호원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내가 마다 할 수도 없다.

職業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변화로써 대장장이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여 현재의 엔지니어가 되었고, 중세기의 보잘 것 없는 어릿광대가 演藝人으로 轉換되었다. 모든 직업이 모두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職業 자체를 賤視하였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였다.

職業은 科學적으로 研究되어지고 다듬어져야 한다. 西洋社會에 있었던 직업에 대한 생각이 우리나라에도 들어 왔으나 우리나라의 職業意識은 意識構造上에 革命을 이끈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 專門職業이 되었고 專門職이 생긴 것이다. 특히 女性의 경우에는 두말할 것 없이 처음부터 거부나 大家가 된다는 생각은 없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1880~1890년 開化期였다. 그때에 이화학당, 정신학당이 생김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들 모두가 중요하지만 집안속에서 일하는 것이 집밖으로 뛰어나와 女性이 집밖에서 일했다는 것은 간호교육의 시작이다. 한국의 역사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은 여성전문직인 간호교육이다. 女性解放運動에서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간호교육이고 어려운 意識속에서 처음으로 專門인 직업을 안겨다

<52페이지에서 계속>

추어 본 뒤 종합하여 문제를 진술한다. 문제의 진술에는 대상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분명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종합할 때 유의할 점은 대상자의 문제 파악은 언제든지 파악에서 시작되어 파악으로 연

준 것이 간호학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내 직업이 사사로 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높은 뜻에서 갖는 것이라고 했을 때 긍지를 갖는다. 나는 男女共學하는 大學에 선생으로 있으면서 안타깝게 느끼는 점이 많다. 입학당시는 남녀학생이 동등하다가도 4학년 졸업시에는 여학생은 꿈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주변에서 부모나 친구가 시집가기를 바라고 전문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게 압력을 가한다. 어떤 때는 男子學生보다 훨씬 뛰어난 女學生도 社會的인 압력때문에 뒤떨어지고 있다.

女性解放運動은 “총태의 여성적이다”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야겠다. 아직도 한국사회의 의식에는 女性에게는 적고 잔잔한 것, 소극적인 것을 기대한다. 女性이 직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팔자가 세다고 한다. 팔자가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 남편의 옷이나 입혀주고 구두나 닦아주고, 반식모적 역할과 상량한 것이 팔자가 세지 않다고 한다면 여자아이에게도 전문적인 직업에 대한 價値를 어렸을 때부터 길러줘야 한다.

現代社會는 미분화된 사회에서 분화된 사회로 비전문화된 사회에서 전문화된 사회로 변화해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構造적으로 改善된 사회에 어울리나 직업에 대한 價値觀도 변화해야 한다.

職業에 대한 새로운 倫理가 進歩的인 態度로 創意的이고 知的인 交流로 스스로 인생을 깨우쳐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한국의 男性들은 女性에 대한 태도가 保守的이다. 현대 청년들도 보수적인 女性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男性은 어머니에게서 깨우쳐야 한다.

看護員인 전문직 여성은 직업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할 때까지 활용하면서 남을 도와 주겠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적극적인 태도로 일하여야 할 것이다.

결되는 계속 과정이라는 사실과 대상자의 문제는 대상자의 부분적이 아닌 전체적인 것이며, 전체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문제의 파악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믿는다.